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Related to Psycho-Behavioral Adjustment in Abused Children
Returning to Their Homes After Out-of-Home Care*

한지숙(Ji Sook Han)¹⁾

이재연(Jae Yeon Lee)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onditions and influential factors of psycho-behavioral adjustment in abused children who had been returned home after out-of-home care. Subjects were selected nationwide from the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Subjects were 54 cooperative children selected from among 126 returned children : they were older than 11 years of age and had experienced more than one day in out-of-home care between January 2002 and December 2003. Findings were : (1)children had such psychological adjustment symptoms as withdrawal, depression, or anxiety, rather than symptoms of misdeeds and aggression. (2) Level of self-esteem and re-abuse were the great influential factors in psycho-behavioral adjustment. This result shows that the processes of out-of-home care and returning home remain important issues for abused children.

Key Words : 피학대아동(abused children), 가정복귀(returning home), 심리행동적 적응(psycho-behavioral adjustment).

I. 서론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 및 방임, 유기 등을 행하는 것으로 시대

와 문화에 따라 정의가 각각 다양하며, 합의된 바는 없다. 학대자의 고의성 여부, 학대로 인한 상처 여부, 학대범위 등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아동학대를 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

* 2004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부임.

¹⁾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교육홍보팀장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 Sook Han,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877-7 Bangbae-dong, Seocho-gu, Seoul 137-060, Korea E-mail : han21queen@hanmail.net

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가정내에서 부모 또는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학대행위로 간주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행해져왔다. 이는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들의 자녀관과 학대를 허용하고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일련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과 더불어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이래 전세계적으로 협약 비준 및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 옹호를 위한 움직임의 활발한 추세에 따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는 2000년 1월 전면적인 아동복지법 개정 및 현행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및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 1391이 운영되고,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사례개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내문제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가장의 실직 등 가정 경제의 어려움과 더불어 부모의 이혼과 가출 등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동학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아동학대발생율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연·홍강의·이양희·조홍식·안동현·곽영숙·한지숙, 2000). 또한 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

동학대 신고 현황에서는 2001년 2,606건, 2002년 2,946건, 2003년 3,53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아동학대사례 판정건수도 2001년 2,105건, 2002년 2,478건, 2003년 2,921건으로 해마다 수백건씩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이와 같이 아동학대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많은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아동 및 학대에 대한 인식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아동학대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내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것으로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발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학대가 사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및 적응 등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비행, 범죄 등 사회문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대가 아동의 전반적인 심리행동적 적응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김승권·조애저, 1998; 홍강의, 2000)들에서 밝혀진 바이다.

아동학대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가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뿐만 아니라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 등 심리행동상의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성장하면서 가출·비행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김유정, 1994).

한편, 현행아동보호체계하에서는 가정내 심각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학대아동을 격리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며, 격리보호기간이나 보호시설 등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여건이나 지역

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보호기간도 각각 다르고,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쉼터 유무 등에 따라 쉼터나 일시보호소, 보육원, 그룹홈 등에서 보호되고 있다.

노혜련(1998)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 아동이 가정의 보호를 받든지 관계없이 친부모로부터의 분리 경험은 아동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들의 심리행동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된 바가 없으며(Simms & Halfon, 1994), 가정으로부터의 분리된 경험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설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정선옥, 2002; 최일경, 1996)가 대부분이다. 친부모와 분리되어 시설보호된 아동의 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아동이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등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지속적인 학대의 경험과 동시에 가정으로부터의 갑작스런 격리보호를 경험한 아동이 심각한 심리행동적 부적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및 격리보호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며, 더군다나 현행 아동보호체계하에서 매년 국내아동학대사례의 약 30% 정도가 격리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보호 또는 가정복귀 후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 상태 및 적응 요인 등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없다.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주로 아동의 연령과 성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일 차원의 학대유형, 학대빈도 및 심각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등 가족환경적 특성, 부부갈등 등의 부모

특성, 사회적 지지 등 한두가지 변인으로 적응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적응의 문제가 개인, 가족, 사회 등 여러 다양한 환경의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학대아동의 적응 특성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적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적응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한지숙, 2004).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가정복귀된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심리행동적 적응 상태 및 심리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격리 및 가정복귀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방법 및 가정복귀된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피학대아동의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특성은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아동 및 가족특성이 심리행동적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전국 19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개입한 사례 중 1일 이상 격리보호 후 가정복귀된 만 11세 이상 만 17세까지의 아동들로¹⁾전체 126명의 아

1)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개입한 아동학대사례가 2002년 2,478건, 2003년 2,921건으로 총 5,399건이며,

동 중 54명(43.0%)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을 만 11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만 11세 미만의 아동은 조사하고자 하는 설문지 작성을 어려워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아동 또는 부모가 조사에 거부하거나, 아동의 지능 등이 떨어져 설문지에 응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센터의 여건과 사례의 지역적 접근성 등의 이유로 만 11세 이상 아동 또한 모두 조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2003), 격리보호되었던 피학대아동을 가정복귀시킬 때는 학대행위자 및 가정환경이 학대 발생 상황과 다르게 변화되고 학대재발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피학대아동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족지원을 위한 연결망이 구축되었을 때, 동시에 피학대아동이 가정복귀를 희망할 때 등이 해당된다.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정복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 구성을 보면, 남아가 30명(55.6%), 여아가 24명(44.4%)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이 중 만 11세 이상의 피학대아동이 2002년 623명, 2003년 808명으로 1,4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31명의 피학대아동 중 친인척보호, 일시 또는 장기보호시설에 격리보호된 경우가 429명으로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고, 429명 중 가정복귀된 아동이 전체 126명 즉 약 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복귀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제 격리보호된 아동들이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심각한 방임사례 등에 해당되며, 학대행위자 및 가정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고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동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 1> 조사대상 아동의 성과 연령 단위(명, %)

	남	여	계
11-12세	23(76.7)	14 (58.3)	37(68.5)
13-15세	4(13.3)	9(37.5)	13(24.1)
16-17세	3(10.0)	1(4.2)	4(7.4)
계	30(100.0)	24(100.0)	54(100.0)

많았고, 연령은 만 11-12세가 37명(68.5%), 13세 이상이 17명(31.5%)으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접촉하였으며 아동과 부모가 동의한 사례에 한해 본 연구자와 사례 담당 상담원이 함께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아동에게 방문 목적과 조사 목적을 설명해 주었고 아동이 직접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4년 1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한달 보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 피학대아동과 관련된 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등의 기록을 분석하였고, 격리보호 및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담당상담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들이나, 각 척도 문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아동복지학 및 사회복지학 박사 3인과 아동학대예방센터 실무자 5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1) 심리행동적 적응

심리행동적 적응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한국판 아동행동체크리스트(K-CBCL :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K-CBCL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부모나 전문가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²⁾.

본 연구에서는 김세원(2002)의 연구에서 활용한 K-CBCL 문항 즉 위축 9문항, 우울·불안 14문항, 비행 12문항, 공격성 19문항 등 총 54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3점까지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평균 점수로 적응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심리행동적 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는 각각 위축 .77, 우울·불안 .90, 비행 .82, 공격성 .85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피학대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보가와 진귀연(199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 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Peer Self-Esteem) 9문항,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Home-parents Self-Esteem) 9문항,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School-Academic Self-Esteem) 8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정말로 내 경우와 같다' 1점, '대부분 그렇다' 2점, '보통 그렇다' 3점, '약간 그런 것 같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8 문항을 제외하고는 역채점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총체적 자아존중감 .79, 사회적 자아존중감 .90, 가정적 자아존중감 .89,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6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전체 자아존중감 척도 신뢰도는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인식한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Olson 등(1985)에 의해 개발된 가족기능 평가척도(FACES III :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수정·활용한 우민정(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적응성 10개 문항과 가족응집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자주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점수범위는 각각 10-50점, 전체 점수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 척도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가족기능 척도의 하위영역인 가족적응성이 .82, 가족응집성이 .91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2) 김세원(200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만 11세 이상의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K-CBCL 문항을 아동 자신이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4) 재학대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재학대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세원(2002)의 척도 중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총 2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가 .11로 낮게 나타난 성학대척도는 제외하였다. 척도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신체학대는 Straus의 '갈등전략척도(CTS)'를 수정하여 사용한 신영화(1986)와 김양희(1995)의 척도를 참고하여 타당도 조사 후 총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에는 신영화(1986), 홍은주(1998), 한국이웃사랑회(현, 굿네이버스)의 아동학대상당사업연구(1998)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타당도 조사 후 7문항, 8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1점에서 '1년에 1-2번 정도' 2점, '2-3개월에 1-2번 정도' 3점, '한달에 1-2번 정도' 4점, '1주일에 1-2번 정도'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학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재학대 척도 신뢰도 Cronbach' α 를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 .64, 정서학대 .83, 방임 .66, 전체 신뢰도는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또래지지

아동의 또래지지에 대한 인식은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김승미(1997)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와 교사지지를 제외한 또래지지만 살펴보았다. 또래지지는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5문항 등 네 개의 하위유형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1점에서 5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지지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정서적지지 .90, 정보적지지 .90, 평가적지지 .86, 물질적지지 .91, 전체 신뢰도가 .9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 관련해서는 우선 빈도 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아동의 신고당시 학대 특성,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특성, 격리보호 및 서비스 특성,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재학대, 또래지지, 심리행동적 적응 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정복귀 후 아동 및 가족특성, 즉 주양육자변화,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재학대, 또래지지 등이 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인 위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조사대상 아동의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특성

1) 신고당시 학대 특성

신고당시 학대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학대나 방임 등 단일학대를 받은 아동이 11명(20.4%)이고 두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를 받은 아동이 43명(7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지속기간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이 25명(46.3%), 1년 이상이 29명(53.7%)으로 1년 이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대빈도는 거의 매일이 20명(37.0%), 2-3일에 한번이 15명(27.8%)으로 약

<표 2> 신고당시 학대 특성

변	수	빈도(명)	백분율	계
학대유형	신체학대	7	13.0	54(100.0)
	방입	4	7.4	
	신체+정서	14	25.9	
	신체+방입	6	11.1	
	정서+방입	6	11.1	
	신체+정서+방입	14	25.9	
	신체+정서+방입+성	3	5.6	
학대 지속기간	1년 미만	25	46.3	54(100.0)
	1년-3년 미만	17	31.5	
	3년 이상	12	22.2	
학대빈도	거의 매일	20	37.0	54(100.0)
	2-3일에 한번	15	27.8	
	1주일에 한번	6	11.1	
	한달에 두번	5	9.3	
	한달에 한번	4	7.4	
	2-3개월에 한번 이상	4	7.5	
신체적 외상여부	없음	33	61.1	54(100.0)
	있음	21	38.9	

65%에 해당되는 아동이 1주일에 2회 이상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당시 신체적 외상여부를 파악한 결과 외상이 있는 경우가 21명(38.9%), 외상이 없는 경우가 33명(61.1%)으로 확인되었다.

2)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가족환경 특성

<표 3>은 피학대아동의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가족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격리 전 피학대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자가정 35명(64.8%), 모자가정 3명(5.6%) 등 전체의 약 70% 정도가 해체가정이었다. 가정복귀 후 피학대아동의 가족유형에서는 부자가정이 23명(42.6%), 모자가정이 13명(24.1%)으로 부자가정의 수가 격리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2% 정도 줄어들고 동시에 모자가정의 수는 약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격

<표 3>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가족환경 비교

변	수	격리 전 가정복귀 후		계
		빈도(%)	빈도(%)	
가족유형	일반가정	7(13.0)	7(13.0)	54(100.0)
	부자가정	35(64.8)	23(42.6)	
	모자가정	3(5.6)	13(24.1)	
	재혼가정	6(11.1)	7(13.0)	
	기 타	3(5.6)	4(7.4)	
주양육자 변화 여부	변하지 않음	-	32(59.3)	54(100.0)
	변함	-	22(40.7)	
동거 가족수	3명 이하	29(53.7)	20(37.0)	54(100.0)
	4명	21(38.9)	22(40.8)	
	5명	4(7.4)	12(22.2)	
국민기초 생활수급권 여부	수급권자	14(25.9)	21(38.9)	54(100.0)
	비수급권자	39(72.2)	33(61.1)	
	모르겠음	1(1.9)	-	

리 이후 부자가정에서 모자가정으로 가족환경이 바뀐 피학대아동이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유형에 있어서 격리전과 가정복귀 후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등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주양육자 변화와 관련되며,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주양육자 변화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가 변하지 않은 경우가 32명(59.3%), 변환 경우가 22명(40.7%)으로 나타나 격리를 기점으로 주양육자 변화를 겪은 아동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리 이전의 피학대아동의 동거가족수는 3명 이하가 29명(53.7%), 4명이 21명(38.9%)으로 대부분 3-4명이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복귀 후에는 동거가족수가 3명 이하가 20명(37.0%), 4명이 22명(40.8%), 5명이 12명(22.2%)으로 격리 이전과 비교해볼 때 가정복귀 이후에 동거가족수가 좀 늘어난 경향이 있었다. 피학대아동 가정의 경제상태를 알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여부에서는 격리전과 가정복귀 후 모두 비수급권 가정이 수급권 가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격리전 수급권 가정이 14명(25.9%), 비수급권 가정이 39명(72.2%)이던 것이 가정복귀 후에는 수급권 가정이 21명(38.9%), 비수급권가정이 33명(61.1%)으로 수급권 가정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정복귀 후 동거가족수가 4-5인이 된 가정이 34명(63.0%)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학대아동이 속해 있는 상당수의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3) 격리보호 및 서비스 특성

조사대상 아동의 격리보호 특성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리 후 39명(72.2%)의 아동이 아동학대예방센터내 쉼터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센터외 일시보호소 7명(13.0%), 보육원 4명(7.4%), 그룹홈 2명(3.7%), 친인척보호 2명(3.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격리보호기간은 3일 이상 3개월 미만이 33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1명(20.4%)을 차지하여 대부분의 아동들이 6개월 미만 격리보호되었다가 가정복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보호기간 동안 보호시설 변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한 시설에 머물렀다가 가정복귀된 아동이 46명(85.2%),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하였다가 가정복귀된 아동이 8명(14.8%)으로 가정복귀 되기 이전에 주로 한 시설에서 보호받다가 가정복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격리보호를 받는 동안 부모 또는 친인척과 접촉한 경우가 33명(61.1%), 접촉하지 않은 경우가 21명(38.9%)으로 한번도 가족과 접촉하지 않은 채 가정복귀되는 경우도 다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격리보호 및 서비스 특성

변	수	빈도 (명)	백분율 (%)	계
아동의 거처	친인척보호	2	3.7	54(100.0)
	센터내 쉼터	39	72.2	
	센터외 일시보호소	7	13.0	
	그룹홈	2	3.7	
	보육원	4	7.4	
보호기간	3일 미만	4	7.4	54(100.0)
	3일-3개월 미만	33	61.1	
	3개월-6개월 미만	11	20.4	
	6개월 이상	6	11.1	
보호시설 변동여부	없 음	46	85.2	54(100.0)
	있 음	8	14.8	
부모 또는 친인척과의 접촉여부	비접촉	21	38.9	54(100.0)
	접 촉	33	61.1	
아동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여부	비제공	39	72.2	54(100.0)
	제 공	15	27.8	
부모상담 제공여부	비제공	2	3.7	54(100.0)
	제 공	52	96.3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여부	비제공	54	100.0	54(100.0)
	제 공	-	-	
가족치료 제공여부	비제공	54	100.0	54(100.0)
	제 공	-	-	
알콜치료 제공여부	비제공	22	40.7	54(100.0)
	제 공	7	13.0	
	비해당	25	46.3	

아동 및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아동의 경우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받은 아동이 15명(27.8%), 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 아동이 39명(72.2%)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앞서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29명인 것과 비교해볼 때,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모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부모상담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가족치료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센터에서 전혀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알콜남용이 있는 학대행위자가 29명인 것에 비해 알콜치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가정복귀 후 피학대아동 및 가족 특성과 심리행동적 적응의 전반적 경향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 상태와 관련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심리행동적 적응,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재학대, 또래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5>과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행동적 적응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위축, 우울·불안 등의 평균 점수가 비행, 공격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동적인 적응보다 심리적 적응 문제를 좀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과 관련해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파악한 결과로 실제보다 좋게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경우, 사회적 자아존중감 3.02,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3.11,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3.15, 총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3.30, 전체 평균점수가 3.13으로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과 관련해서는 가족적응성이 2.51, 가족응집성이 2.81, 전체 2.66으로 나타났다. 재학대의 경우에는 정서학대 또는 방임의 평균점수가 각각 1.64, 1.55로 신체학대 1.17에 비해 다소

<표 5>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54)

변 인		문항수	평 균	표준편차
심리 행동적 적응	위 축	9	1.41	.35
	우울·불안	14	1.40	.40
	비 행	12	1.19	.24
	공 격 성	19	1.30	.25
자아 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	6	3.30	.78
	사회적 자아존중감	9	3.02	.89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9	3.11	1.0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8	3.15	.61
	전 체	32	3.13	.59
가족 기능	가족적응성	10	2.51	.74
	가족응집성	10	2.81	.95
	전 체	20	2.66	.80
재학대	신체학대	7	1.17	.33
	정서학대	7	1.64	.85
	방 임	8	1.55	.61
	전 체	22	1.46	.49
또래 지지	정서적 지지	7	3.12	.10
	평가적 지지	6	3.03	1.02
	정보적 지지	6	3.03	.95
	물질적지지	5	2.82	1.10
	전 체	24	3.01	.93

주 : 심리행동적 적응은 1-3까지의 3점 척도임.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재학대, 또래지지는 1-5까지의 5점 척도임.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이 1.46으로 재학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학대보다는 외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서학대 또는 방임 발생이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지지는 전체 3.01로 중간 수준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래지지의 하위영역 중 물질적 지지에 대한 평균이 2.82로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복귀 후 피학대아동 및 가족 특성과 심리행동적 적응과의 관계

가정복귀 후 피학대아동 및 가족 특성, 즉 주

〈표 6〉 피학대 아동 및 가족특성이 심리행동적 적응과의 관계

	위 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	
	b	β	b	β	b	β	b	β
주양육자 변화(변함: 1)	.11	.17	.11	.14	-.02	-.04	.00	.00
자아존중감	-.30	-.51**	-.34	-.50**	-.16	-.39*	-.10	-.25
가족기능	-.03	-.07	-.08	-.16	.02	.05	-.03	-.08
재학대	.20	.28*	.28	.34**	.19	.38**	.04	.09
또래지지	.00	.00	.07	.15	-.01	-.04	.05	.21
상수'	2.08		2.02		1.42		1.46	
R ²	.41		.48		.39		.08	
Adjusted R ²	.35		.43		.32		-.02	
F	6.70****		8.86****		6.07***		.84	

*p<.05 **p<.01 ***p<.001 ****p<.0001

양육자 변화,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재학대, 또래지지 등이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을 위해 주양육자 변화를 dummy처리하였고, 격리 당시와 가정복귀 후 가족형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 0, 변한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정복귀 후 피학대아동 및 가족특성이 공격성을 제외한 위축, 우울·불안,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축에 대해 41%, 우울·불안에 대해 48%, 비행에 대해 3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 및 가족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재학대가 위축, 우울·불안,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양육자변화, 가족기능, 또래지지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아존중감은 위축, 우울·불안, 비행의 순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재학대의 경우에는 비행, 우울·불안, 위축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축, 우울·불안 등의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가정복귀 후 재학대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격리보호되었다가 가정복귀된 피학대아동들을 추적·조사함으로써 피학대아동의 격리전과 가정복귀 후 특성 비교 및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특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우선,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가족환경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모두 모부자가정이 거의 70% 정도로 높아 가정해체가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격리 전과 가정복귀 후 가족환경의 변화 중 더욱 특징적인 것은 격리 당시에는 부자가정에서 생활하던 아동이 가정복귀 후 모자가정으로 옮겨진 경우가 다소 있어 격리 아동의 양육환경 및 주양육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비수급권 가정이 다소 많았으나, 가정복귀 후에 수급권 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피학대아동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대행위자의 절반 이상이 알콜남용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노총래(2002)와 Shultz(2001)가 아동학대행위자들의 알콜 및 약물남용이 학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밖에 가정복귀 후 피학대아동 및 가족 특성, 즉 주양육자 변화,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재학대, 또래지지 등이 심리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재학대가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변인이 위축, 우울·불안, 비행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추소정(2002)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비행 또는 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 연구(Levin & McDevitt, 1993)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낮다는 심승원(2001)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재학대의 경우에는 비행, 우울·불안, 위축의 순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또래지지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심각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본 연구대상의 아동들에게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이 심각한 학대를 받은 유사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아동의 집단 또는 원가정보호된 학대아동 집단 등과의 비교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학대 예방업무 현장에서 격리보호된 피학대아동을 가정복귀시킬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회복 및 가정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재학대 발생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대받은 아동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개별적인 상담치료 접근을 충분히 하여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킨 후 집단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새로운 신뢰관계를 재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학대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또한 필요하다. 게다가,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격리보호한 아동을 가정복귀시킬 때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안동현·박현선·김완진·한지숙, 2003). 즉 아동이 머무르고 있는 가정에 대한 위험사정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및 적절한 보호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표집의 어려움 및 표집의 제한으로 인해 예비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통계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대부분의 센터들이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해당사례가 많지 않아 대상 표집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해당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 또는 부모가 거부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부모가 모두 조사에 동의협조적이거나 추적이 가능한 사례

에 국한되어 표집되었다. 게다가,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의 연령, 격리보호기간 등의 변인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외에도 부모가 평정하도록 고안된 K-CBCL 측정도구를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제한점을 들 수 있다. 더군다나 자기보고식 응답은 실제보다 좋게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부모 또는 교사의 평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외현화된 행동과 관련해서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가 더욱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정복귀된 피학대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 상태 및 적응 변인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더 많은 사례수의 표집이 필요하며 예비조사 후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김세원(2002).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승권·조예저(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미(1997).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김양희(1995). 가출 아동의 신체적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정(199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 방법 :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혜련(1998).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이론과 과제. 분야별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98 사회복지 그룹홈 세미나.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에방센터(2003). 아동학대에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에방센터(200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승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동현·박현선·김완진·한지숙(2003).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우민정(2000). 초기 부모-자녀 결합형태 및 가족기능과 아동의 외로움간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안진·민하영·권기남(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이재연·홍강의·이양희·조홍식·안동현·곽영숙·한지숙(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I. 아동권리연구, 4(2), 97-123.
 정선옥(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보가·전귀연(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최일경(1996).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추소정(2002). 정서적 학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이웃사랑회(1998). 아동학대상담사업연구. 서울 : 한국이웃사랑회 출판부.
 한지숙(2004).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행동적 적응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 위논문.
- 홍강의(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 복지부.
- 홍은주(1998). 아동기 학대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2(1), 97-111.
- Levin, J., & McDevitt, J.(1993). *Hate crimes : The rising tide of bigotry and bloodshed*. New York : Plenum Press.
- Olson, D. H., Porter & Lavee, Y.(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Minnesota, MA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imms, M. D., & Halfon, N.(1994). The health care needs of children in foster care : A research agenda. *Child Welfare*, 73(5), 505-524.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28일 채택